

외국인 선수로 화력 강화...광주FC '반격의 4월' 만든다

재충전 기간 체력·전력 보강
알렉스·헤이스 데뷔 준비 'OK'
4일 인천 상대 안방서 승리 사냥
외인 공격수 3명으로 늘린 전남
안방서 대전 상대 승리 사냥 나서

광주는 휴식기 동안 체력 회복에 우선 공을 들였다. 가벼운 전술훈련을 통해서 체력을 관리한 광주는 대학팀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조직력 강화와 감각 유지에도 나섰다.

세르비아 특급 수비수 알렉스와 브라질 출신 공격수 헤이스도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K리그 데뷔 준비를 끝냈다.

새 외국인 선수들의 가세 속 '괴물 공격수' 펠리페도 지난 6라운드 제주전을 통해 기다렸던 첫 골도 기록했던 만큼 자신감으로 인천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은 올 시즌 2승 4패를 기록하며 8위에 올라 있다. 아길라르와 네게바를 앞세운 매서운 공격과 함께 김광석, 문지환이 이끄는 수비진의 탄탄함까지 더해 초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전적에서 광주가 4승 11무 5패로 다소 열세를 보이지만, 광주는 지난 시즌 두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순위 도약에 성공했다.

체력과 전력을 채운 광주가 인천을 상대로 홈 첫 승을 신고하고 '반격의 4월'을 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시 외국인 공격수로 힘을 더한 전남드래곤즈도 안방에서 승리에 도전한다.

전남은 4일 오후 1시 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K리그2 2021 5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 홈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앞서 브라질 출신의 발로텔리를 영입하면서 사무엘, 알렉스 등 세 명의 공격수로 외국인 쿼터를 채웠다.

지지 않는 경기가 아닌 이기는 경기를 위해 공격



광주FC가 펠리페와 함께 새 외국인 선수 헤이스, 알렉스로 새 진영을 구성해 승리 사냥에 나선다. 사진은 3월 26일 제주 원정경기에서 골을 넣고 기뻐하는 펠리페와 동료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충전을 끝낸 광주FC가 승점 사냥을 재개한다. 광주는 4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K리그1 2021 7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2월 28일 수원삼성과의 개막전을 치른 뒤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6경기를 소화했다. 강행군 속 '우승 후보' 울산현대, 전북현대를 상대로 쟁쟁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대구FC와의 3라운드에서는 4-1 대승을 연출했다.

6경기 성적은 1승 1무 4패(승점 4·11위)로 아쉬움은 남지만 경쟁한 팀들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은 승부를 펼쳤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끝 같은 A매치 휴식기를 보낸 광주는 물러설 수 없는 진검 승부를 앞두고 있다.

인천을 시작으로 승격팀인 수원FC(7일)를 만난다. '강등 후보'로 언급되는 팀들과의 사실상 승점 6점을 놓고 벌이는 승부다. 10일에는 성남FC까지 연달아 만나는 만큼 광주는 휴식 뒤 중요한 3연전을 펼치게 됐다.

을 강화한 전남은 FA컵 2라운드를 통해 시원한 득점쇼도 펼쳤다.

전남은 지난 3월 27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A컵 2라운드에서 K5 소속의 정수FC를 상대로 11-0 대승을 거뒀다. 1경기 11득점은 전남 창단

이후 최다 팀 득점. 경기 시작 2분 만에 나온 김선우의 골을 시작으로 박희성, 알렉스가 헤트릭에 성공했고 김경민, 발로텔리, 사무엘, 김한길도 골 맛을 봤다. 외국인 공격수들이 모두 득점 행진에 가세하면서

화력에 불이 붙었다. 개막 후 1승 3무로 지지 않고 있지만, 승리가 아쉬운 전남이 '11득점'의 기세를 이어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선이공대 레슬링 맹활약...윤도경 금, 김도근·정양훈 동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

조선이공대 레슬링부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맹활약했다.

1일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에 따르면 조선이공대 레슬링부 선수들이 지난 29~30일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제39회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 및 제31회 회장기 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 등 총 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도경(스포츠재활과)은 여자자유형 68kg에서 1위를 차지해 금메달을 수상했다.

김도근은 남자대학부 자유형 61kg에서 3위를, 남자 정양훈(이상 스포츠재활과)대학부 자유형 57kg에서는 선수가 3위를 차지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순계 총장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훈련에 임해준 우리대학 선수들이 대견스럽다"며 "우리대학 레슬링팀이 매년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대거 수확하며 신승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더욱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이공대 레슬링팀은 지난해 8월 전국대회인 '양정모 올림픽 제패 기념 제45회 KBS배



윤도경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국레슬링대회' 남자대학부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여자일반부에서 동메달 1개로 총 메달 4개를 획득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46회 대통령기 전국사도대학레슬링대회'에 참가해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 검객들 SBS검도왕대회 선전...초등부 최현준 우승

조선대 양욱·양상훈 2·3위
북구청 조관훈 일반부 3위



2021년 SBS전국검도왕대회 수상자들이 광주시검도회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선대 양상훈·초등부 최현준·조선대 양욱 일반부 조관훈. 뒷줄 왼쪽부터 오길현 조선대 감독·김태호 광주 북구청감독·이전중 시사범·김현준 광주검도회 실무부회장·양진석 양진석검도관장·김정희 오치검도관장. <광주시검도회 제공>

광주 검객들이 2021년 SBS전국검도왕대회에서 선전했다.

1일 광주시검도회에 따르면 지난 30~31일까지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대회에서 초등부 우승, 대학부 2·3위, 일반부 3위의 성적을 냈다.

최현준(오치검도관,문우초)은 초등부 결승전에서 배용환(전북보훈검도관)을 2-0으로 꺾고 검도왕에 올랐다.

양욱(조선대)은 대학부 결승전에서 김관수(국민대)에게 아깝게 판정패해 준우승을 거뒀다.

양상훈(조선대)은 같은 급 준결승에서 김관수(국민대)에게 0-2로 패해 3위에 머물렀다.

조관훈(광주 북구청)은 정준호(인천시청)에게 0-1로 무릎을 꿇어 3위에 그쳤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민헨, 손흥민에 러브콜

"1년 기다려서라도 영입"

독일 프로축구의 '절대 1강'이자 지난 시즌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유럽 무대를 제패한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29·토트넘) 영입을 원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1일(한국시간) "뮌헨이 손흥민 계약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토트넘에서 그를 데려오기 위해 1년을 기다릴 준비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입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다.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이번 시즌까지 5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EPL)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팀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잡았다.

올 시즌 EPL 28경기에서 13골 9도움, 공식전 41경기에서는 18골 16도움을 기록하며 최고의 기량을 뽐내는 그는 2023년 6월이면 토트넘과 계약이 종료된다.

이 매체는 지난해 10월 토트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구단이 20만 파운드(약 3억 1000만원) 이상의 주급을 조건으로 5년 재계약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협상은 6개월 가까이 답보 상태다.

재계약을 확정 짓지 못하면서 손흥민을 둘러싼 이적설이 꾸준히 흘러나온다.

앞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유벤투스(이탈리아) 등 빅클럽 이적설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독일 최강' 뮌헨이 러브콜을 보냈다.

풋볼 인사이더는 "뮌헨은 토트넘과 계약 기간이 남은 손흥민을 내년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뮌헨은 현재 세르주 나브리, 킹슬리 코망, 리오이 자네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을 살펴보면 손흥민이 이들의 기록을 뛰어넘는다. 손흥민은 EPL에서 가장 위험한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차군단' 독일의 수모

북마케도니아에 1-2 충격패

'전차군단' 독일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20년 만의 패배를 당했다.

안방에서, 그것도 상대가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랭킹 65위(독일 13위)의 북마케도니아여서 충격은 더 크다.

요아힘 뢰프 감독이 지휘하는 독일 대표팀은 1일(한국시간) 독일 뒤스부르크의 사우인슬란트-라이젠 아레나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예선 조별리그 J조 3차전 홈 경기에서 북마케도니아에 1-2로 패했다.

현재 FIFA 랭킹은 13위까지 밀려났지만 역대 월드컵에서 네 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강호 독일이

유럽축구의 변방 북마케도니아에 밀렸을 당했다.

독일이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진 것은 2001년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02 한일 월드컵 예선 잉글랜드전 1-5 패배 이후 20년 만이자 36경기 만이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2연승 후 첫 패배를 당한 독일은 승점 6에 머무르며 조 3위로 내려앉았다.

J조에서는 FIFA 랭킹 99위의 아르메니아가 이날 루마니아를 3-2로 꺾고 3연승을 달리며 선두로 나섰고, 독일을 꺾은 북마케도니아(2승 1패)가 2위로 올라섰다.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10개 조 1위는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고, 각 조 2위는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조 3위부터는 탈락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고질라 VS. 콩
2관	자산어보
3관	자산어보, 아무도 없는 곳, 최면
4관	자산어보
5관	자산어보
6관	고질라 VS. 콩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7관 씨네커틀	미나리, 해질림
8관 씨네커틀	해질림, 최면, 커피 오버 더, 싱크로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4. 01.(목) ~ 04. 30.(금)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커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